

음주운전 김새론 '뒤늦은 사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하고 채혈검사 귀가 비난 쏟아지자 "음주운전 죄송...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22)이 뒤늦은 늦은 사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드러내 비난이 이어진다.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변압기까지 들이받아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끊겼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따라 김새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음주 감지기 테스트를 했다. 직후 양성 반응이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려 했지만 김새론은 이를 거부한 뒤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김새론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다른 조사 없이 귀가 조치됐다"면서 "결과를 2주 후에 나올 예정이고, 추후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단 2줄짜리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이미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확한 검사"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 혐의 논란을 피해 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속사는 뒤늦게 19일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새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김새론

‘한국영화로 칸 가는’ 탕웨이·고레에다 히로카즈…中·日의 시선은

박찬욱 감독 영화를 중국 배우가 이끈다고?

‘헤어질 결심’ ‘브로커’ 경쟁부문 초청 과거 탕웨이 마녀사냥했던 中언론 언제 비난했냐는 듯 호평일색 보도 日언론도 연일 보도하며 수상 점쳐 우익누리꾼 “좌익감독” 조롱 여전



고레에다 감독

일본과 중국의 대표적 ‘스타’들이 참여한 한국영화가 칸에서 ‘일’을 낼지 세계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중국배우 탕웨이가 각각 연출작 ‘브로커’와 주연작 ‘헤어질 결심’으로 18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수상 경쟁을 벌인다. 과거 작품 활동과 관련해 한때 일부 자국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시선’을 받은 적이 있는 두 사람이 한국 자본을 투입한 한국영화를 통해 나란히 세계적 무대에 올라 더욱 눈길을 끈다.

●왜 한국영화를 택했나?

일본 영화계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018년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자국에서는 냉담한 대우를 받았다. 그가 영화를 통해 빈부격차 등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



중국 배우 탕웨이와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나란히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왼쪽부터)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는다.

다는 일부의 차가운 시선이 나왔다.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예술가와 운동선수 등에게 축전을 보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느 가족’ 수상에는 침묵하다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 뒤늦게 축전을 보냈지만 고레에다 감독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감독은 이후 프랑스에서 ‘파비안’에 관한 진실을 만들었고, 그다음 작품인 ‘브로커’로 다시 칸으로 향했다.

탕웨이는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리안(이안) 감독이 2007년 연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색, 계로’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극중 친일파를 사랑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에서 비난받았다. 누리꾼은 몰

론 언론마저 탕웨이를 향해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탕웨이는 무대를 넓혀 할리우드 영화와 ‘만추’, ‘원더랜드’,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에도 출연해왔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탕웨이가 2018년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 ‘지구 최후의 밤’ 이후 4년 만에 다시 칸의 초청을 받으면서 중국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매체들은 과거 탕웨이를 언제 비난했냐는 듯 “황금종려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중국 배우가 이끈다”고 강조했다.

중국 누리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탕웨이의 한국어 대사가 ‘헤어질 결심’ 예고편에 등장하자 ‘탕웨이 한국어’가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다. 중국 SNS 웨이보에도 ‘헤어질 결심’ 관련 뉴스가 핫 검색어로 떠올랐다.

마이니치와 도쿄 헤드라인 등 일본 매체들도 2018년 ‘어느 가족’ 이후 다시 한번 칸 황금종려상에 도전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한 기사를 연일 내고 있다. 그의 수상을 바라는 일본 누리꾼의 응원도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배우들과 작업을 언급하며 그를 “좌익 감독”이라고 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의 악의적 시선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훈훈함 넘치는 박보검의 ‘의리행보’

전역했지만 ‘해군 호국음악회’ 진행 ‘구르미’ 김성윤 PD 예능 출연 검토 10년째 후원 보육원에 직접 찾아가

최근 전역한 박보검이 예전 연인을 맺었던 무대에 다시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간적 의리를 중시하는 행보로 받아들이지면서 훈훈함을 자아낸다.

박보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를 강야랑 KBS 기상캐스터와 함께 진행했다.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으로 입대 2020년 이후 3년째다. 지난달 30일 전역했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해군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앞서 6일에는 2018년부터 입대 직전까지 진행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도 섰다.

전역 이후 복귀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새 예능프로그램도 마친가지다. 그는 2016년 주연한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연출자 김성윤 PD가 기획 중



배우 박보검이 최근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인 여행프로그램 출연을 검토 중이다. 김 PD뿐 아니라 김유정 등 동료들과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의리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0년째 후원해온 한 보육원을 전역 직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육원 측은 박보검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13년부터 박보검과 소속사, 팬카페 회원들이 각종 물품을 후원해주고 있다”며 “팬들이 보낸 물품을 박보검이 직접 정리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군 복무 중에도 영화와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아온 그는 현재 본격적으로 작품을 검토하고 있다. 주연 영화 ‘원더랜드’의 개봉을 기다리며 조만간 차기작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농약

한스농장 파워센 충전식 자동분무기 KC품질안전제품

한번충전으로 8시간 살포할수 있음



분무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간편하게 분무대만으로 작업 가능한 새로운 제품입니다

호수길이 40M 사용 100M 살포가능

물리립(줄감는거) 별도구매

아직도 무거운 분무기를 메고 작업하십니까?

- ▶ 호수길이 40m 사용 100m까지 살포가능
- ▶ 노년층과 여성분 사용적합
- ▶ A/S 보증기간 1년

공직총판 010-2471-8245 070-8623-8245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탄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구입문의: 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용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탄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전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 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 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식제기능, 음량조절 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용) 보급형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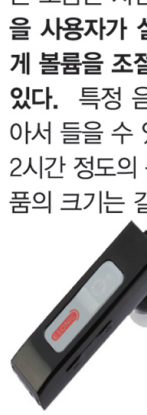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보청기 ·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 잘 들린다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됐다. 이 제품은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때 답답했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 시 선명한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교회나 대강당, 넓은 공간 등에서 강의, 세미나, 수업, 설교 등을 또렷하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잡음이 적게 회로가 설계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특정 음역대역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쪽 귀에만 꽂아서 들을 수 있고 양쪽귀에도 꽂아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약 2시간 정도의 충전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넓이가 1.5센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사용방법은 블루투스를 한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과 스테레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